

## 균형잡힌 인생을 살아가리라

양충석 /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사무처장

희망과 의욕으로 출발한 새 천년의 첫 10년이 막을 내리고 두 번째 10년의 첫해가 밝더니, 그 경인년의 첫 달이 지나 이제 2월이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해야 하나, 아직 열 한 달이 남았다고 해야 하나.

누구에게나 어느 특정한 날(Day)이나, 달(Month), 그리고 해(Year)가 개인적으로 큰 의미와 지워지지 않는 시간들로 기억되어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도 2월은 길지 않은 삶의 한 구석에 가슴시린 추억이 있다.

아주 오래 전, 당시는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1973년 2월, 가정 형편상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던 필자는 국비장학생으로 '공군기술고등학교'(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군 특수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군인으로서의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 2월 한 달을 대전 유성 공군교육사령부(현, 경남 진주)에 가입교하여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때, 필자의 키가 156cm였으니, 철모의 무게는 목을 가누기 힘들었고 군복 상의주머니는 허리 벨트 속으로 들어갔으며 바지 밑단은 무릎까지 접힐만큼 길었다. 전투화는 요셋말로 항공모함이라 할 만큼 질질 끌렸고



CAL30 이라 부르는 소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개머리판이 종아리를 짓눌렀다.

날씨는 또 왜 그리 추웠던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외로움과 벽간 내무생활, 엄격한 규정 속에서도 친구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하며 군센 의지로 3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1976년 2월 졸업과 동시에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공군통신전자학교 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낮에는 피교육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밤에는 대학생으로서 주경야독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때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영어영문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년 후, 의무복부 기간이 다되어 학교생활까지 1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83년 2월 공군 중사로 전역을 했다.

사회인이 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을 더 공부하고 영어교사로 교직생활과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년 여름, 큰 녀석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공군에 입대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를 찾아 입소식도



구경하고 생활관과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정말 감개가 무량해 가슴이 벅차올랐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병영생활과 부대 분위기, 그리고 입소 훈련병들의 부모와 지인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려 노력하는 부대 관계자들의 배려가 너무 인상적이고 가슴 뭉클하게 했다.

옛날이야, 어디 지금 같은 분위기를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그날 저녁 집에 올라오니 큰 녀석은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제 동생에게 메모를 남겨두고 떠났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요새 젊은이들은 나약하고 예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의 젊은이들은 깨끗하고 생각도 깊고 나름대로 각자의 몫을 훌륭히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원시시대 동굴의 벽에 있던 고대문자 낙서를 번역하니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고 하지 않던가.

이제, 또 2월을 맞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 좀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고개가 숙여진다.

항상, 삶에 용기를 주는 부모형제들과 가족친지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나마 열심히 살도록 도와준 사회와 국가에 감사드린다.

올해도 2월의 어느 날, 어김없이 몇몇 가까이 지내는 선·후배들과 만나 그 옛날을 기억하고 힘들었던 추억담을 나누며 소주잔을 기울일 것이다.

누군가는 별것을 다 기념한다고 하겠지만, 남들과 다른 관점이 있었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반성하는 기회도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참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2010년 2월 2일

충북일보 「마음으로 보는 세상」면 게재

## 설날, 피반령 고개를 넘으며

‘돌아가는 저 길에 외로운 저 소나무/ 수많은 세월 속을 말없이 살아온 너/ 돌아가는 저 길에 네가 좋아 나 여기 찾아와 쉬노라...’

오늘도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외길」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즐겁고 행복했던 설날 명절을 가슴에 담고 피반령 고개를 넘는다.

필자의 고향은 충북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회인이다.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운전도 수월해졌지만, 본가를 찾을 때면 이 고개를 넘으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어떻고 길이 좀 꼬불꼬불하면 또 어쩌랴.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을 만나고, 제수 음식을 마련하고, 형제들과 정담을 나누고, 어머니 차례를 모시고, 아버님께 세배를 드리고, 성묘를 다녀오고, 친지들 세배를 다니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동네 마을회관으로 향한다.

십여 년 전, 어느 시골이나 그러하듯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회지로 떠나다 보니, 동네에 큰일[喪事]이 생기면 상여를 뭇 사람조차 없다는 말에 친구들과 의논하여 열 한명이 「향우회」를 만들었다. 설날과 추석, 오후 2시면 모두 모여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얘기며 옛날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진다.

몇 해 전인가, 명절을 맞아 변함없이 마을회관을 찾은 우리는 아주 귀하고 보기 드문 사진을 접했다.

동네 마을이장이 면사무소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196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으로 부락(마을로 순화)안 길 확장공사를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찍은 흑백사진 4장을 발견해 확대를 해서 액자에 걸어둔 것인데 - 동네 어귀의 물레방앗간, 미루나무 위의 까치집, 초가지붕과 흙돌담, 좁다란 골목길과 싸리삼작, 코흘리개 누이들과 우물가, 일제 강점기 본토로 캐가려 했다는 꼬부랑 소나무, 그 곳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넓다란 바위,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어른들의 모습 등 - 어찌나 신기하고 반갑던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심지어 사진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서로 의견이 분분해져 액자를 들고 동네 어르신을 찾아 누군지 판가름을 받고 저녁식사 내기까지 한 일이 있었으니, 그 얼마나 가슴 짠하고 세월을 소통한 연결의 고리인가.

그리고, 동네에 큰일이 생기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꽃상여도 메고 장지(葬地)를 찾아 잔디도 심고, 잔심부름은 물론 일이 끝날 때까지 동네일을 돌보아 드린다.

지난주 성당에서 신부님 강론 말씀 중 '다음 주간이 설날이라 고향을 찾거나 여러 가족들이 모일 텐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라'면서 '끝날 때 얼굴을 붉히며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을 보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

비록, 고향 본가에서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일을 겪다보니, 한 달은 보낸 것 같이 마음이 충만하고 길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 많은 우리 국민들은 명절이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따뜻한 정과 사랑이 그리워, 추억을 찾기 위해 고향을 찾는다. 또한,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우리들이 태어나고, 뛰어놀고, 부모 친지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힘들면 찾아가 기댈 수 있는 곳 고향,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 따스한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제 또 건강한 삶을 위해 씩씩하게 세상 현실 속으로 돌아간다.

올 추석에는 친구들에게 마을회관 창고 시렁에 있는 팽과리, 장구, 북, 징을 꺼내들고 동네 집집마다 돌며 풍물놀이를 하자고 부추겨 봐야겠다.

고갯마루를 다 넘어가니, 음악도 끝이 내려나 보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청주 시가지 저녁노을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2010년 2월 16일

충북일보 「마음으로 보는 세상」면 게재